

Best Design Award

성명 : 이기혁, 성창경, 최우영

소속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論文名: High-Speed Adaptive Equalizer using Phase Detector

貴下는 동부하이텍 IP 설계 공모전에서 大賞 Design 으로 選定 되었기에 이 賞狀과 賞金을 드립니다.

2007年 7月 23日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
사장 오영환



이기혁 · 성창경씨 "한국을 비메모리 반도체 일등국가 만드는 게 꿈"

"우리나라를 비메모리 반도체 일등국가로 만드는 게 꿈이죠."

동부하이텍이 24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실시한 제1회 반도체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의 이기혁씨(31)와 성창경씨(26)는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 있는 메모리 분야와 달리 대만 등에 뒤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싶다는 포부다.

이씨 등은 KAIST, 포스텍, 서울대 등 우수 대학 학생들과 경합을 벌여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들이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반도체 설계 논문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정보 손실을 막아주는 고속 이퀄라이저(equalizer) 기술로 반도체 면적과 전력소모를 크게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심사를 맡았던 송재인 박사(동부하이텍 상무)는 "조금만 손을 보면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반도체 설계와 제작을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하이텍은 0.13마이크로 미터 공정기술을 학생들에게 공개해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설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설계작업을 한 기간만 5개월, 패키징 작업과 실제 테스트까지 5개월이 더 걸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10개 대학 37개팀이 참가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입력: 2007-07-24 18:09 / 수정: 2007-07-25 11:36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국내 최초 대학생 IP 설계 공모전 개최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7-24 11:00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대표: 오영환 사장, www.dongbuhitek.com)은 24일 국내 최초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대학생 IP 설계 공모전(반도체 설계 경진대회)을 열고 우수 논문을 발표한 3개 팀을 대상으로 총 2천만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IC Design Education Center)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IP 설계 공모전은 작년 9월부터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대·KAIST·포항공대 등 10개 대학 37개 팀이 참여했다.

이날 공모전에서는 반도체 설계 제안서를 제출한 37개 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7개 팀들이 동부하이텍 상우공장(Fab2)의 130나노급 공정을 활용하여 반도체 칩을 설계·제작한 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성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반도체 IP 설계 공모전에서는 "High-Speed Adaptive Equalizer using Phase Detector"를 발표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이기혁씨 외 2명이 대상을 차지하고, "Low Power, Area Efficient Baseband Building Blocks for Wimax Systems"와 "A CMOS Hybrid Switching Amplitude Modulator with the Light Load Efficiency Improved for EDGE Polar Transmitters"를 발표한 KAIST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 김지훈씨 외 3명, 광태우씨 외 2명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상금 외에 입사시에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1등을 차지한 이기혁씨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독창적인 설계 방법 개발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칩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첨단 디지털 모바일 제품용 반도체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날 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 채수익 교수,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등 대내외 반도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설계의 우수성·상용화 가능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설계한 반도체를 칩으로 제작해 동작을 구현해보고 싶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이번 기회는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 의미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오영환 사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SoC 분야는 연 매출 2,000억원의 벤처기업을 탄생시키는 등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유능한 설계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대회는 SoC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응용 능력을 갖춘 전문설계인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욱 자주 만들어 반도체 분야의 학술적 기반을 넓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1. 이날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대학생들과 동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에서 첫번째와 두번째가 대상을 차지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성창경 씨와 이기혁 씨, 세번째가 박재욱 동부문화재단 부사장, 네번째가 오영환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사장)

2. 동부하이텍과 IDEC가 주관한 제 1회 IP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이기혁씨(우측)와 성창경 씨.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